

—
우리말의 맛과 멋을 살려 쓰는 동시
—

신현배

시인

올해는 내가 동시를 쓰기 시작한 지 36년이 되는 해다. 강산이 세 번 반 바뀌었는데도 겨우 동시집 네 권을 묶어 냈고, 얼마 전에 동시 선집 한 권을 펴냈다. 36년 묵은 나무라면 제법 큼직하게 자라나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기쁨과 즐거움을 줄 터인데, 내가 키워 놓은 ‘동시 나무’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꽃도 아름답지 못하고, 열매도 부실하기만 하다. 그래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동시 선집을 낸 것은 동시 쓰기를 평생의 시업(詩業)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내가 동시를 쓰게 된 것은 1979년 서점에서 월간 《소년》을 접하고 나서였다. 스무 살 때 나는 소설가를 꿈꾸던 문학청년이었다. 소설이 풀리지 않는 날은 버스를 타고 시내를 쏘다녔다. 동화서적, 종로서적에 들러 신간 서적이나 문예지를 보는 것은 큰 즐거움이었다. 그러다가 운명적으로 만난 잡지가 《소년》과 《시조문학》이었다. 두 잡지를 만나면서 동시와 시조를 알게 되었고, 생각지 않게 동시와 시조를 쓰게 되었다.

아동 잡지인 《소년》에는 아름다운 삽화를 곁들인 동시가 여러 편 실려 있었다. 처음 접해 본 동시들은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쉬운 우리

말을 시어로 쓰고 있어 우선 시가 어렵지 않아 좋았다. 성인 시는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시가 많아 선뜻 손이 가지 않았는데, 동시는 누구나 알기 쉽게 쓰여 한번 맛을 들이니 자꾸 찾아 읽게 되었다. 개울 물을 들여다보듯 맑은 동심이 살아 있는 시들은, 소설을 쓰느라 메마른 내 가슴을 흠뻑 적셔 주었다. 그때 문득 나도 동시를 써 봤으면 하는 충동을 느꼈다. 거기에 불을 댕긴 것이 그 지면에서 발견한 ‘신인 추천 작품 모집’ 광고였다. 무엇에 홀린 듯 하룻밤 새 동시 세 편을 썼고, 놀랍게도 그 가운데 한 편이 추천작으로 뽑혔다.

당시엔 2회 추천제여서 동시 1회 추천을 받은 뒤 추천을 끝내려고 《소년》에 열심히 작품을 보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작품을 보내면 함흥차사였다.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어 떨어뜨린다는 발표라도 났으면 좋으려만 아무 소식이 없었다. 오기가 생겨 계속 작품을 써서 보냈고, 3년이 지난 1982년에야 동시 〈강아지풀〉로 추천을 마칠 수 있었다.

3년쯤 그렇게 습작을 하고 나니 비로소 동시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거기에 욕심도 생겨서 신춘문예를 기웃거렸고, 1986년 《조선일보》에 동시 〈보리뿌리점〉이 당선되었다.

보리뿌리점을 친다. / 입춘날 / 아이들이 보리밭에 모여 / 언 손 호호
 불며 / 보리뿌리점을 친다. // 고추장빛 노을에 밥을 비벼 먹고 싶은
 남이, 승냥 빛깔 하늘의 별이 되고 싶은 영이, 진달래 꽃잎 붙여 지진
 떡 먹고, 꽃굴레 쓰고 노는 산놀이가 꿈인 순이 // 한자리에 모여 /
 불 지핀 소망을 안고 / 보리뿌리점을 친다. // 얼어붙은 땅을 파내 보
 리 뿌리가 새 가닥이면 풍년, 두 가닥이면 평년작, 가닥이 보이지 않
 으면 흉년이라며 올해의 가난을 엿본다. // 모두들 / 밥풀눈이 된다.

- 신현배, 〈보리뿌리점〉 전문

‘보리뿌리점’은 입춘 날 농가에서 보리 뿌리를 파 보고 그해 농작물의 풍흉을 점치는 일이다. 보리 뿌리가 세 가닥 이상이면 풍년, 두 가닥이면 평년작, 가닥이 보이지 않으면 흉년이라고 한다. 내가 보리뿌리점을 소재로 동시를 쓴 것은 가난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 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풍속적이고 향토 서정·자연 친화적인 작품에서 내가 동원한 우리말 어휘들은 ‘고추장빛 노을’, ‘송충 빛깔 하늘’, ‘진달래 꽃잎’, ‘꽃굴레’, ‘밥풀눈’ 등이다. 아름답고 순수한 우리말을 최대한 살려 동시를 썼기 때문에 입춘 날 아이들이 모여 보리 뿌리점을 치는 정경을 더 정겹고 실감나게 보여 줄 수 있었다.

동시의 사전적 정의는 ‘어린다운 생각과 느낌을 글감으로 하여 어린이를 위하여 지은 시’다. 어른인 아동문학가가 지은 시를 ‘동시’, 어린이가 지은 시를 ‘아동 시’라고 하여 동시를 아동 시와 구분하기도 한다. 어쨌든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나 생각, 느낌 등을 작품에 담는 것이 동시인데, 누구에게나 잘 읽힌다. 독자 대상이 어린이여서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는 데다 시가 어렵지 않고 쉽기 때문이다. 다음의 두 작품을 살펴보면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암만 배가 고파도 / 느릿느릿 먹는 소. // 비가 쏟아질 때도 / 느릿느릿 걷는 소. // 기쁜 일이 있어도 / 한참 있다 웃는 소. // 슬픈 일이 있어도 / 한참 있다 우는 소.

— 윤석중, 〈소〉 전문

“야야, 이참에 너도 좀 / 앉아서 쉬지 그래!” // 새참을 내온 엄마가 / 정겹게 말을 걸어도 // 갈다 만 / 밭 한가운데에 / 멀뚱멀뚱 서 있는 소 // “그 식구 아니랄까, / 닭기는 와 그키 닭노.” // 새참을 다 드

실 동안 / 말씀 없는 아빠처럼 // 피약별 / 고 한자리에서 / 새김질하
는 순둥이

- 김용희, 〈우리 집 누렁소〉 전문

위의 두 편은 소를 소재로 하여 쓴 동시이다. 윤석중의 〈소〉는 소의 느릿느릿한 맛을 살려 쓴 작품이고, 김용희의 〈우리 집 누렁소〉는 소를 한 식구로 여기는 소에 대한 엄마의 깊은 애정을 보여 준 작품이다.

맹사성의 스승인 학자 권근은 “소를 타는 것은 더디고자 함이다.”라며 소를 타는 것을 최고의 풍류로 꼽았다. 옛날에 선비들이 소를 타는 것은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보다 풍류적인 멋 때문이었다. 말에 비해 매우 느리지만 그 느릿느릿한 맛에 소를 타는 재미가 있다는 것이다. 윤석중의 〈소〉에서 소는 배가 고파도 느릿느릿 먹고, 비가 쏟아질 때도 느릿느릿 걷는다. 행동이 느려 답답해 보이지만 소는 그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 ‘빠름’을 지향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소에게 배워야 할 점은 성급함을 버리고 여유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나아가는 느림의 미학 아니겠는가.

김용희의 〈우리 집 누렁소〉에는 우직하게 일만 하는 누렁소가 나온다. 새참을 내온 엄마가 “야야, 이참에 너도 좀 앉아서 쉬지 그래!” 하고 말해도 “갈다 만 밭 한가운데에 멀뚱멀뚱 서 있”다. 가축은 주인을 닮는다고 했던가? 우리 집 누렁소는 “새참을 다 드실 동안 말씀 없는 아빠처럼 피약별 고 한자리에서 새김질하는 순둥이”다.

“신라 지증왕 3년(502년) 소로 논밭을 갈기 시작했다.”라는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농사에 소를 이용해 왔다. 따라서 소에 대한 애정이 아주 각별했다. 옛날에는 한 핏줄로 이루어진 가족인 ‘식구(食口)’와 구별하여 한 집에서 사는 종을

‘생구(生口)’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소를 ‘생구’로 여겨 정성을 다해 보살피 주었다. 외양간을 부엌 옆에 두고 쇠죽가마와 밥 짓는 가마를 나란히 걸어 놓는 등 소를 사람처럼 대접했던 것이다. <우리 집 누렁소>에 나오는 누렁소는 ‘생구’ 정도가 아니라 ‘식구’ 대접을 받고 있다. “느그 식구 아니랄까, 닭기는 와 그키 닭노.”라는 엄마의 말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나 <우리 집 누렁소>나 어려운 말은 하나도 없다. 쉬운 우리말로 동시를 빚어냈기 때문에 누가 읽어도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은 동시만의 장점이자 매력이다. 동시는 우리말을 갖고 다듬어 독자인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써야 하기 때문이다.

동시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의성어·의태어와 운율로 우리말의 맛과 멋을 살려 쓴다는 점이다. 그래서 소리글자인 우리말의 특성을 살려 뛰어난 언어 감각과 리듬감이 느껴지는 동시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진천장 5일장 / 고무통 안에 / 오리새끼들. // 꺽꺽. / 동무 밀치고 /
 밖을 보네. // 꺽꺽. / 동무 등을 밟고 / 바깥세상 보네. // 꺽, 밀치고
 / 꺽, 밟고 // 꺽꺽, 꺽꺽 / 눈버둥 / 발버둥이네.

- 김마리아, <꺽꺽 꺽꺽> 전문

풀잎은 / 꺾도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어요. / 우리가 ‘풀잎’ 하고 그를
 부를 때는, / 우리들의 입 속에서는 푸른 휘파람 소리가 나거든요. //
 바람이 부는 날의 풀잎들은 / 왜 저리 몸을 흔들까요. / 소나기가 오
 는 날의 풀잎들은 / 왜 저리 또 몸을 통통거릴까요. // 그러나, 풀잎
 은 / 꺾도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어요. / 우리가 ‘풀잎’, ‘풀잎’ 하고 자

꾸 부르면서, / 우리의 몸과 맘도 어느덧 / 푸른 풀잎이 돼 버리거든요.

- 박성룡, 〈풀잎〉 전문

풀 한 잎 또옥 따서 / 냇물에 띄웁니다. // 생각 한 잎 또옥 따서 / 내
마음에 띄웁니다. // 잠길 듯 / 배 되어 가는 / 풀 한 잎, 생각 한 잎. //
풀 한 잎 생각 한 잎 / 자꾸 따서 띄웁니다. // 숙이네 아랫마을 / 돌아
앉은 꽃마을로 // 잠길 듯 / 아, 잠길 듯이 / 내 하루가 떠갑니다.

- 서벌, 〈풀 한 잎 생각 한 잎〉 전문

김마리아의 〈꽤 꽤 꺾꽂〉은 소리시능말인 의성어를 최대한 살린 작품이다. ‘꽤 꽤’, ‘꽤’, ‘꽤’, ‘꽤 꽤, 꺾꽂’ 등이 적재적소에 쓰여 새끼 오리들이 고무 통 안에 담겨 있는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했다. 의성어의 쓰임이 효과적이어서 한때 유행했던 어설픈 ‘말놀이 동시’와는 격이 다른 우리말의 재미와 말맛을 느끼게 한다.

박성룡의 〈풀잎〉에서 시인은 ‘풀잎’이라는 이름에 주목한다. 풀잎은 “꽤도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다며, ‘풀잎’ 하고 부르면서 “푸른 휘파람 소리”가 난다는 것이다. 휘파람 소리는 청각적 이미지이다. 그런데 그 소리가 눈에 보이는 듯 “푸른 휘파람 소리”라고 하여 풀잎의 맑고 싱그러운 이미지를 잘 나타냈다. 둘째 연에서는 “바람이 부는 날의 풀잎들”과 “소나기가 오는 날의 풀잎들”의 움직임에 포착하여 풀잎의 역동적인 모습과 싱싱한 생명력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마지막 연에서는 “우리가 ‘풀잎’, ‘풀잎’ 하고 자꾸 부르면서, / 우리의 몸과 맘도 어느덧 / 푸른 풀잎이 돼 버리거든요.”라고 하여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경지를 보여준다. 이 동시는 ‘풀잎’이라는 낱말 하나로 우리말의 맛과 리듬을 살려 쓴 시인의 언어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서벌의 〈풀 한 잎 생각 한 잎〉에서 ‘나는 “풀 한 잎 또 옥 따서 / 냇물에 띄우고, “생각 한 잎 또 옥 따서 / 내 마음에 띄운다. “풀 한 잎 생각 한 잎”은 “잠길 듯 / 배 되어” 떠간다. 생각에도 잎이 있어 생각 한 잎 또 옥 판다는 표현이 재미있다. 그렇다면 ‘나는 왜 “풀 한 잎 생각 한 잎 / 자꾸 따서 띄웠을까? 그 이유는 “숙이네 아랫마을 / 돌아앉은 꽃마을”로 띄워 보내기 위해서다. ‘나는 아랫마을에 사는 숙이를 사랑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숙이를 향한 생각, 그 사랑의 마음을 풀잎에 담아 냇물에 띄워 보내는 것이다. 그 사랑의 마음이 오죽 간절했으면 온종일 풀 한 잎 생각 한 잎 자꾸 따서 띄워, “잠길 듯 / 아, 잠길 듯이 / 내 하루가 떠” 간다고 했을까?

이 작품은 우리 가락을 가진 동시인 동시조다. 우리 민족의 전통 시로서 우리말을 같고 닦아 담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릇이 시조가 아니겠는가. 시조에 ‘동(童)자가 붙었으니 동시조는 우리 민족이 지키고 보존해 온 우리말의 맛과 멋을 살려 고유의 가락에 동심을 잘 담아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풀 한 잎 생각 한 잎〉은 동심을 잘 드러내고 문학적 형상화에도 성공한 동시조 작품이다.

‘시는 상상의 언어’라고 했다. 특히 동시는 상상력 없이는 쓸 수 없는 갈래라는 생각이 든다. 좋은 동시는 상상력을 자극할 뿐 아니라 미적 쾌감을 주기 때문이다.

몇 년 전 김기택 시인의 문학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 김기택 시인은 그 강연에서 “시가 즐거운 이유 중의 하나는 어린이처럼 상상하게 하기 때문이라며 재미있는 일화 한 가지를 소개했다. 여러 해 전에 김기택 시인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조카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어린 손자가 할머니 댁에 갔는데 할머니가 틀니를 뺐다 끼웠다

하더라. 신기하게 바라보던 손자가 이렇게 말하더라. “할머니, 할머니, 눈알도 한번 그렇게 해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김기택 시인은 안에서 무언가 ‘뺨!’ 터지는 기분이었다고 한다. 이가 다 빠져 틀니를 쓰는 게 얼마나 괴롭고 불편할까, 늙어서 온몸이 삐걱거리면 얼마나 속이 상할까 하는 생각은 어른들의 것이다. 이를 통째로 뺏다가 다시 끼우는 일은 아이에게는 신기한 마술이다. 아이는 제 몸을 떼었다 붙였다 하며 변신하는 마징가제트처럼 할머니가 위대해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이는 할머니의 다른 마술도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김기택 시인의 해석이다. 그는 어린이의 상상력은 자유롭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오랫동안 시를 써 오면서 시가 어린이의 말을 닮았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된다고 했다. 시나 어린이의 말은 관습을 깨는 자유로운 말을 쓴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하물며 어린이를 독자로 하는 동시는 어떻겠는가? 상상력을 발휘하여 관습을 깨는 자유로운 말을 쓰고 어린이의 말을 닮은 동시가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참신한 동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인이 어린이처럼 자유분방한 상상력을 갖지 못하고 고정 관념에 매어 있거나 상투성의 그물에 갇혀 있다면 관습적인 상상력에 의해 뻘한 발상과 진부한 언어의 시를 빚어낼 수밖에 없다.

사나운 바람을 견디느라 / 등 굽은 / 팔배나무 빨간 열매 / 콩배나무
 까만 열매 / 새들의 도시락이다 // चु고 배고픈 새들 먹으라고 / 나무
 가 마련한 / 맛갈스런 도시락 // 새를 기다리는 / 빨강고 까만 도시락
 을 / 짧은 햇살이 데우고 있다.

- 조영수, 〈새들의 도시락〉 전문

산은 웅달샘이 콧구멍이다. / 산이 숨 쉬는 모습을 볼래? / 산은 하늘
을 들이마시고 맑은 노래를 물길로 내보내지. / 날마다 산이 푸르고
건강한 이유를 알겠다.

- 남진원, 〈산〉 전문

조영수의 〈새들의 도시락〉에서 시인은 동심의 눈으로 팔배나무와
콩배나무를 바라보며 색다른 상상을 해 본다. “팔배나무 빨간 열매 / 콩
배나무 까만 열매”는 “츄고 배고픈 새들 먹으라고 / 나무가 마련한 / 맛
깔스런 도시락”이라고 말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시인은 츄고 배고픈
새들에게 차가운 도시락을 먹일 수 없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따뜻한 햇
살로 눈길을 돌린다. 그러고는 “새를 기다리는 / 빨강고 까만 도시락을
/ 짧은 햇살이 테우고 있다.”고 상상한다. 이런 상상력은 매우 신선하
다. 관습적인 시각에서 한참 벗어나 독창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
다. 시인의 그 상상력은 식물적 상상력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나무 열
매를 면밀히 관찰하여 “새들의 도시락”으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남진원의 〈산〉 역시 상상력이 뛰어난 작품이다. 상상력의 눈으로 산
을 바라보면서 “산은 웅달샘이 콧구멍”이라고 했다. 그리고 “산이 숨 쉬
는 모습을 볼래?”라고 말하면서 “산은 하늘을 들이마시고 맑은 노래를
물길로 내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 작품을 읽으면 ‘시의 이미지는 시인
의 상상력에 의해 그려진 언어의 그림’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그만큼 독
창적인 상상력을 통하여 산이라는 시적 대상을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
로 감각적이고 섬세하게 묘사했다. 이 시는 산을 신격화된 산이 아닌
인간화된 산으로 형상화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예부터 산은 신이 내려오는 곳이자 산신이 사는 신의 공간이었다. 고
려 때나 조선 때에도 특정 산들에 신격을 부여하여 국가의 수호신으로

서 나라의 안녕을 비는 제사를 정기적으로 지내기도 했다. 그런데 이 작품에 그려진 산은 전통적인 숭배의 대상인 ‘성스러운 산’이 아니라 인간과 마찬가지로 똑바로 누워서 콧구멍으로 숨을 쉬는 산이다. 산은 웅달샘이 콧구멍이기 때문에 웅달샘에 비치는 하늘을 들이마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숨을 내설 때에는 맑은 노래를 물길로 내보낼 수 있다. 숨쉬기 운동만 잘해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날마다 산이 푸르고 건강한 이유”가 산이 숨쉬기 운동을 하기 때문이라는 마지막 구절이 공감을 준다. 이 시는 산도 숨을 쉰다고 밝힘으로써 이 세상 모든 생명체가 숨을 쉰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이 작품으로 시인은 생명의 소중함과 우리가 잊고 사는 자연의 숨결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 아닐까.

동시라는 갈래의 특징과 작품을 중심으로 우리말의 쓰임새를 알아보았다. 동시는 누구에게나 쉽게 읽히며 내용이 어렵지 않고 쉬운데, 이것은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동시가 다양한 의성어·의태어와 운율로 우리말의 맛과 멋을 살려 쓴다는 점과, ‘동시는 상상의 언어로서 상상력 없이는 쓸 수 없다는 점도 밝혀 두었다.

아동 문학은 어린이를 독자로 하는 문학이다. 그런데 동시 문학은 ‘동(童)’자가 붙은 ‘시 문학’으로서 어린이는 물론 동심을 가진 어른까지 독자로 한다. 즉, 동심의 시가 동시인 것이다. 동심이 살아 있는 작품은 누구에게나 쉽게 읽힌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이 있듯이 ‘동시는 시의 아버지’라는 말도 있다. 모든 시의 근원은 동시이고, 시심의 원천은 동심이다. 그리고 원초적인 자연과 인간의 삶 속에서 보고 겪고 느낀 것을 순수한 우리말로 아름답고 진실하게 표현하는 갈래가 동시다. 그래서 좋은 동시는 깊은 감동을 자아낸다.

흔히 시는 ‘우리말의 보물 창고’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동시는 ‘동심의 텃밭’이자 ‘우리말의 공간’이라 부르고 싶다. 동시를 쓰는 시인은 독자인 어린이를 생각하며 먼저 동심을 일구고, 그 밭에서 동시를 경작하기 때문이다. 나는 36년째 동시 농사를 짓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알곡은 없고 씨라기만 가득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동시 농사를 짓고 싶다. 그래서 알곡 같은 작품들을 갈무리하여 시의 공간에 들고 싶다. 이것이 평생 동시와 함께 살아 온 나의 유일한 바람이다.